

공동체 소식



연중 제4주일

아버지, 성자 그리스도를 지혜의 스승이요 저희의 구원자로 주셨으니,
저희가 힘자게 믿음을 고백하여,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들의 참행복을 증언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박재천 알베르토 / 박계숙 헬레나 가정
- 현교정 돈보스코 / 조경애 요안나프란치스카 가정

초 축복식

오늘 중심미사 때, 일년 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정 초는 미사 후, 전례부를 통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대 초 봉헌 : 총 332불)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2/6(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2/7(토) 오전 10시, 목주기도 후 미사

구역모임

- 1구역 : 2/7(토) 오후 7시, 정석원 라파엘/안혜진 임마쿨라따 가정
- 2구역 : 2/7(토) 오후 7시, 정준구 파비아노/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3구역 : 2/7(토) 오후 7시, 감영진 라파엘/한춘희 라파엘라 가정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2/14(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모어 성당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2월 15일(일) 11시 중심미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 은인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지향은 미리 전례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어린이 세배와 율놀이가 마련됩니다. 즐거운 명절을 공동체와 함께 보냅니다.

기타

- 한국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주임신부님께서 지난 금요일(30일) 귀국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제대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돌아오는 2/18(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예식에 사용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9	219	160/170	6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문호진 안토니오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서은 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호섭 요셉 최선운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유경애, 한춘희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5	65명	319불	430불
이내익, 문석찬, 정연숙 (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 공생활의 첫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의 영, 끝없는 분열과 증오의 영, 신앙에 대한 불신과 무의미함의 영들입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영들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의탁한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할 것입니다.

그림 묵상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있는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놀람은 더러운영이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신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의 영혼을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악마를 복종시키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라사

제 1 독서 : 신명기 18,15-20 < 나는 예언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

화 답 송 : 

주님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시니 구원의 기쁨으로
저를 휘감아 주시리이다.

-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진이여
주님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
- 제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감추며
주님께 저의 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 제 제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나이다. ◎
- 너희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꺼워하여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32-35
< 처녀는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 음 : 마르코 1,21-28 <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



“삼시간에 퍼진 예수의 소문”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전도활동의 무대를 갈릴래아 지방으로 정하시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가파르나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로 남부에서 그의 사명을 수행했다면 예수님은 북부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전도활동의 기간은 대략 3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며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보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그 가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대중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대단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했으며 특히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악령이 무서워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탄복을 했고 그의 소문은 삼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있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옛날 율법학자들은 성서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학자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학자들의 권위가 쇠퇴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은혜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두려움과 그리고 속박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목소리만 높였고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에서 외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흘렀고 복잡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하느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론이 나 전통에 묶여져 있지도 않았으며 왜곡된 내용을 쓸데없이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하고 애매한 것은 직접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며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며 거기에 어떤 힘과 사랑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었으며 또 한 그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의 교수법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행의 일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악령 보고 ‘나가가라.’ 하시자 악령이 혼쫓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성직자들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언행의 일치’입니다. 아무리 강론을 잘하고 아무리 사목을 잘해도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는 권위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라는 자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돈이나 밝히며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성직자로서의 그의 생명은 끝장난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어떤 본당이 있는데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신자들의 열심과 기도로써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2백만 불짜리 집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가 우리가 한 푼도 안 주고 거저 성전을 얻었으니 우리가 모은 돈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대 교수였던 회장과 신문사 사장이었던 어떤 형제가 들고 일어나서 신부를 비난하고 신자들을 선동해서 악착같이 반대해서 본당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자들이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꼭 실천해야 할 인간의 과제입니다. 더구나 그가 신앙인이고 의술을 펴는 의사요 또한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남들이 반대해도 그들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불쌍한 이웃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사랑을 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반대를 하게 되니 과연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아니고 언론인이 아니라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신앙을 떠나서도 한 인간으로서 끝장이 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쌍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니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느님을 배척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삼시간에 퍼진 예수의 소문은 없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이웃에 예수님의 소문은 삼시간에 사회를 밝힐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눕시다. 거기에 사랑의 권위가 있습니다.

- 광주대교구 강길웅 신부 -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제8 장 찬미의 기도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 주리라(시편 50,23).

【주석】

찬양 제물 : 시편 92,2에서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라고 노래한다.

【설명】

▶ 찬미의 기도는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한다. 온 세상 만민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찬송함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총을 베푸시기에 찬미를 드리며, 우리는 하느님이 위대하시기에 흠송을 드리며, 우리는 하느님이 만물의 주님이시기에 찬양을 드린다.

▶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다니 3,62-65).

▶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루카 1,46-50).

【교회의 가르침】

▶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 하느님이심을 한결 더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의 형태이다. 찬양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리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9항).

▶ 시편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아름답게 말해 줍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도 좋을 씨고. 하느님 노래하라, 찬미도 고을 씨고.” 그렇습니다. 시편은 백성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이며, 회중이 드리는 찬미의 노래이고, 모든 이가 치는 손뼉입니다. 보편적인 교훈이고, 교회의 목소리요, 노래로 바치는 신앙 고백입니다(성 암브로시오).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